

四氣五味論의 구조적 해석

조용주 · 김진주

두리한의원

Abstract

Structural Interpretation of Properties and Flavors of Drugs

Cho Yongju, Kim Jinju
DooRee Oriental Clinic

Four Properties and five Flavors of Drugs is interpreted by adaptation of human body to the environmental theory(天人相應). The Structural model of the body is compared with sky, earth, sun and moon(天, 地, 日, 月). The natural changes of the four seasons give rise to that of Four Properties and five Flavors of Drugs. On equal terms it is happened in our body. On this study we can draw an analogy between sky, earth, sun & moon(天, 地, 日, 月) and the body. The six bu(六腑) is related to the earth, the five ju(五主) to the sky, the five jang(五臟) to the sun, the meridians system(經絡) to the moon.

When spring, the air is warm, the water element of the earth is ascending, and the earth gives birth to the sour flavor. Like this, the water element is absorbed by six bu and then is ascended to the meridian system. When summer, the air is hot and the water element of the earth is floated, the earth make the bitter flavor. In the same way, the six bu absorbed the hot air from the five ju and the water element is quickly absorbed by six bu and then the water element is ascended to the meridian system. When rainy season(長夏), the earth creates the sweet flavor. The sweet flavor give warmer energy to the five jang and the six bu. When autumn, the earth change the sweet flavor into pungent. The earth gives warmer energy to the sky, because of cool weather. According to same process, the pungent flavor give warmer energy to the five jang and the six bu, and the meridian system gets back the water element from the five ju. When winter, the air is cold and the water element of the earth is hidden. The sky and the earth are not interchangeable. At that time, the earth produce the salty flavor and the water element is keeping in the meridian system.

Keywords : four Properties and five Flavors of Drugs, five jang, six bu, five ju, meridian system

I. 서론

四氣五味란 寒熱溫涼의 四氣와 酸苦甘辛鹹의 五味를 뜻하는데 四氣는 天에서 發源하고 五味는 地에서 發生한다¹⁾. 五味의 發生은 하늘의 四時變化에 의해 地氣가 感應하여 생겨나게 되는데 天溫하면 地는 形을 갖춘 물질이라서 味를 갖추게 되어 이때 酸味를 구성하여 天溫의 陽氣를 받아들이는 식이다²⁾. 이러한 방식으로 天熱하면 苦味를, 天熱極하여 勞極하면 甘味를, 天涼하면 辛味를, 天寒하면 天地否塞하여 鹹味로 藏氣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주로 陰陽天地의 對待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天地自然은 항상 調和와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지 않게 力動的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이러한 치료를 위한 立方의 原理에서도 자연의 調和와 均衡의 道理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³⁾.

기존의 四氣五味論에 대한 해석은 처방을 위한 病症과 약물의 단순한 대입방식에 그쳐 실제 病症을 진단하고 處方하는데 간단한 원리를 제외하고는 氣味論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辨證과 이에 상응하는 기준처방을 선택할 뿐 각각의 처방이 구성하고 있는 약물의 상호간 작용과 질병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적

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치료에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약물의 四氣五味論의 해석이 정밀해질수록 기준처방에 대한 加減이나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四氣五味論에 대한 해석은 우리 몸을 둘러싼 자연이 四時變化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天人相應’의 원리를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天地日月과 人身을 먼저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四時變化에 따른 자연변화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氣味變化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

1. 天地日月과 人身의 구조적 비교

자연은 體에 해당하는 天地와 用에 해당하는 日月을 갖추고 四時晝夜의 변화를 하고 있다⁴⁾. 우리의 몸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고 일으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모든 제 현상은 상호간의 間者가 있게 마련이니 陰陽 이전에 太極이 있고, 五行의 가운데에 土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이 天地人 三才에서 사람

- 1)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地氣，雲出天氣，故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清陽發腠理，濁陰走五臟，清陽實四肢，濁陰歸六府，水爲陰，火爲陽，陽爲氣，陰爲味”라고 하여, 清陽이 하늘을 이루고 濁陰이 땅을 이루며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된다고 했다. 陽의 바탕이 되는 하늘은 六氣를 형성하고 陰의 바탕이 되는 땅은 五行의 기운을 통해 五味를 갖춘다.
- 2)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發源한 風의 기운이 땅에서 木氣를 낳고 다시 木氣는 酸味를 낳는다고 했다.
- 3)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所以聖人春夏養陽，秋冬養陰，以從其根，故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逆其根則伐其本，壞其眞矣。故陰陽四時者，萬物之終始也，生死之本也，逆之則災害生，從之則苛疾不起，是謂得道。道者聖人之行，愚者佩之。從陰陽則生，逆之則死，從之則治，逆之則亂，反順爲逆，是謂內格。是故聖人不治已病治未病，不治已亂治未亂，此之謂也。”라고 했다.
- 4) 『皇極經世書·觀物外篇』에서 “乾坤定上下之位，離坎列左右之門，天地之所闔闢，日月之所出入，是以春夏秋冬，晦朔弦，晝夜長短，行度盈縮，莫不由乎此矣。”라고 하여 天地는 體的 개념이고 水火日月은 用的 개념임을 보이고 있다.

을 뜻하는데 사람은 天地의 가운데 있어 가장 貴하고 天地上下의 변화를 그대로 담게 된다⁵⁾. 乾卦는 陽爻가 初中末로 그어져 있고 坤卦는 陰爻만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운데 있는 一陰一陽이 昇降相交하면 乾天은 一陰을 받고 一陽을 내어줌으로써 離火가 되고 坤地는 一陽을 받고 一陰을 내어줌으로써 坎水가 되니 이것이 ‘坎戊月精, 離己日光’⁶⁾이다. 이로써 天一生水 地二生火하게 되는데 天의 一陽이 地에 있어서 水가 되고 地의 一陰이 天에 있어서 火가 되어 天地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乾坤坎離 天地水火가 설정된 뒤에야 비로소 만물이 생겨나게 되니 이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五味를 바로 天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本草의 藥性和 方劑의 妙用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東垣 李杲는 『脾胃論用藥宜禁論』에서 “升降浮沈則順之, 寒熱溫涼則逆之”라 하였으니, 사람과 같은 모든 생명은 태양의 기운을 담은 火에 의해 변화하는 天의 四氣에는 거스르려고 하고 月の 기운을 담은 水는 변화에 따르려고 한다고 하였다⁷⁾. 봄이 되어 天溫

하면 地中の 水는 升之하고, 여름이 되어 天熱하면 水는 浮之하고, 天涼하면 水는 降之하고, 天寒하면 水는 沈而藏之한다. 味라 하는 것은 바로 天의 四氣가 地의 水氣에 녹아내려 만들어진 것으로 생명의 원천이요 삶의 근원이 된다. 人身의 陰陽清濁과 天地水火를 類分하는 것을 기준으로 五味를 설명⁸⁾할 수 있을 것이다.

天地라 함은 本位⁹⁾를 뜻하는데 位는 體用の 體의 상태요 變하지 않는 本根을 뜻한다. 諸陽은 外位하고 諸陰은 內位하는데 太虛한 天廓이 重實한 地를 에워싸고 있어 天地가 변화하고 있다¹⁰⁾. 만물이 존재하는 곳에 陽位는 外가 되고 陰位는 內가 되며¹¹⁾, 天位는 外動하고 地位는 內靜하게 된다. 人身은 五臟六腑와 五主¹²⁾, 經脈으로 구성되어 있다. 人身에서 가장 內位한 곳은 六腑로 臍 중심으로 분포하고 人身에서 가장 外位한 곳은 五主로 皮肉脈筋骨로 구성되어 있다¹³⁾. 陰은 五臟으로부터 얻어져 五臟을 주관하고, 陽은 四肢로부터 얻어져 六腑를 주관한다¹⁴⁾. 五臟과 六腑는 모두 內陰位에 있지만 六腑는 腹에 있으니 陰中陰位요

- 5) 『皇極經世書·觀物外篇』에서 “天地之本, 其氣於中乎, 是以乾坤交變而不離乎中, 人居天地之中, 心居人之中, 日中則盛, 月中則盈, 故君子貴中也.” 라고 했다.
- 6) 『參同契闡幽』에 나오는 말로 乾中の 陽인 戊土가 坤中으로 들어와 坎水가 되고 坤中の 陰인 己土가 乾中으로 들어와 離火가 됨을 나타낸 말이다.
- 7) 月水는 天氣의 所生(乾中一陽爻가 坤中으로 들어가 月水가 됨)으로 天의 본바탕은 體가 되고 天이 낳은 月水는 用이 된다. 月水는 天六氣의 변화에 따라 升降浮沈하게 된다.
- 8) 『素問·陰陽離合論』에서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이라 했고, 「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若天與日..... 陰之所生, 本在五味”라 했으며, 「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故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清陽實四肢, 濁陰歸六府,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라 했고, 「陰陽別論」에서 “四經, 應四時, 十二從, 應十二月, 十二月, 應十二脈.”이라 했다.
- 9)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天地者, 萬物之上下也.”라고 하여 上下 四方의 공간으로 位를 의미한다.
- 10)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大氣舉之也,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游行其間, 寒暑六入, 故今虛而生化也. 故燥勝則地乾, 暑勝則地熱, 風勝則地動, 濕勝則地泥, 寒勝則地裂, 火勝則地固矣.”라 했다.
- 11)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라고 했다.
- 12) 『素問·宣明五氣』에서 “五臟所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라고 하여 皮肉脈筋骨을 五主라고 했다.
- 13) 『靈樞·經脈』에서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이라 하여 五主는 外位를 뜻한다.

五臟은 胸中腹上에 있으니 陰中陽位가 된다. 六腑는 純陰之地라 地位가 되고 五臟은 地氣의 一陰이 上升하여 乾位로 오른 것이니 離火의 象이 된다. 그러므로 五臟은 一陰을 얻어 陰이 주관하게 되고, 六腑는 天位인 四肢로부터 陽을 얻어 陽이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五主와 經脈은 모두 外陽位에 있지만 五主는 表裏를 갖추고 있으며 經脈은 表裏之間을 流注한다. 그러므로 五主는 天位에 있고 經脈은 天位の 一陽이 下降하여 坤位로 내려온 것이니 坎水의 象¹⁵⁾이 된다. 이렇게 人身은 內外之位로 보아 內地外天하고 上天下地하게 되니 六腑는 內地하고 五主는 外天하며 五臟은 日火에 해당하고 經脈은 月水에 해당하는 것이다. 日月은 五臟과 經脈을 뜻하는데 五臟과 經脈은 모두 精氣神血魂魄을 藏하고 行하는 곳이다¹⁶⁾. 결국 天은 五主에 해당하고, 地는 六腑에 해당하며, 日火는 五臟에 해당하고, 月水는 經脈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五主의 寒熱溫涼은 五臟의 변화에 기인하며 六腑를 통해 升降浮沈하는 水氣는 經脈의 변화에 기인한다. 五臟의 五行변화에 의해 氣火의 虛實變化를 낳게 되고 經脈의 陰陽調和에 의해 形水의 盈虧變化를 낳게 된다¹⁷⁾. 五臟은 日主가 되고 經脈은 月主가 되는데 經脈은 陰陽多少之變을 살피는 곳이고 五臟은 五行虛實之變을 살피는 곳이다. 人身은 五主와 六腑가 天地에 상응하고, 五臟과 經脈이 日月에 상응한다. 日月의 變化로 生死幽明이 달라지니 우리의 몸으로 본다면 바로 五臟과 經脈이 이러한 변화를 낳는다. 五

藏과 經脈에는 神이 출입하고 六腑와 五主에는 物이 출입하므로 神妙한 변화의 根本은 日과 月이며 物質의 바탕은 天과 地이다. 五臟과 經脈은 日月로서 用이되고 六腑와 五主는 天地로서 體가 되므로 이러한 구조를 살펴 人體를 다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天地水火 乾坤坎離를 인체에 비유하여 그 구조를 設定한 뒤에 五味를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자.

2. 四氣五味の 天地日月에 따른 順逆

味는 바로 이 水火의 기운이 相濟되거나 混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봄이 되면 天溫하여 地水는 升하게 되는데 이때 땅에서는 酸味가 이루어지고, 여름이면 天熱하여 地水는 浮하게 되므로 苦味가 이루어지고, 長夏에 勞極熱盛하면 甘味가 이루어지고, 가을에 天涼하면 地水가 降하게 되어 辛味가 이루어지고, 겨울이면 天寒, 地水沈藏하여 天地否塞¹⁸⁾하니 鹹味가 이루어진다. 이 상황을 人身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바로 五臟, 六腑와 五主, 經脈으로 설명할 수 있다. 天溫의 상태는 五臟의 日火에 의해 五主가 溫한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五主의 溫氣를 六腑에서 흡수하게 되고 六腑로 水氣가 모여들게 된다. 그러므로 地에 해당하는 六腑에서는 酸味가 생겨나게 되고 酸味는 溫氣를 모으고 六腑에서 水氣를 거두어 經脈으로 上升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天地와 臟腑經脈과 五主가 모두 調和와 均

14) 『靈樞·終始』에서 “陰者主臟，陽者主腑，陽受氣於四末，陰受氣於五臟。”이라 했다.

15) 『素問·陰陽別論』에서 “十二月，應十二脈”이라 했고 『靈樞·陰陽繫日月』에서 “月生於水”라 했는데 經脈은 달의 度數에 應하고 달은 水로부터 生하였으므로 經脈은 坎水의 象이다.

16) 『靈樞·本藏』에서 “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濡筋骨，利關節者也… 五臟者，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라고 했고, 『靈樞·本神』에서 “心藏脈，脈舍神”이라고 했다.

17) 氣火는 에너지를 의미하여 質的變化를 惹起하지만 形水는 物質을 의미하여 量的變化를 惹起한다.

18) 『周易』에서 否卦를 의미하는데 上卦가 乾天이고 下卦가 坤地이면 上下가 不交하여 否塞하게 된다. “天地不交，否”라고 했다.

衡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夏天熱한 상태는 五臟에 의해 五主가 熱한 것을 의미하며 이 五主의 熱氣를 六腑에서 다 받아들여야 하므로 六腑에서는 飲水를 통해 水氣를 대량으로 끌어 모으게 된다. 六腑는 이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여 經脈을 통해 五主의 熱氣를 減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六腑는 五主의 熱氣를 흡수함과 동시에 六腑 內에 머무르고 있는 水氣를 급격하게 흡수하여 經脈을 통해 水氣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苦味의 상태와 같아지게 되므로 ‘苦以燥之堅之’ 하게 된다. 또한 六腑로부터 거두어진 水氣는 經脈을 타고 五臟으로 上升하여 五臟의 火熱을 식히게 되는데 이것은 여름에 諸氣가 上升하여 升浮하는 것과 같다. 長夏에는 五臟이 火熱을 더 이상 발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으며 六腑로부터 水氣를 공급받아 經水를 보충할 수도 없어서 부족한 상태인 虛脫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는 水火의 모든 氣가 다 부족하게 되는데 이때 甘味는 五臟에게는 溫和한 火氣를 공급하며 六腑에게 水氣를 역시 완만하게 공급하게 한다. 마치 장마비와 같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秋天涼한 상태는 五臟의 火熱이 弱해져서 五主가 涼하여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에는 六腑로부터 五臟이 精氣를 流入받게 된다. 五主가 涼하게 되면 六腑는 五主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火熱을 방출하여 다시 五臟으로 보내어 平衡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화흡수의 작용이다. 소화를 위해 辛味를 多用하게 되는 이유이다.

辛味는 六腑로부터 생겨난 精氣를 外散시켜 五臟으로 移行하게 하여 본래 五臟으로부터 六腑로 供與되어진 精氣를 다시 온 곳으로 되돌려준다.

이때가 자연의 가을에 해당하니 秋收를 하여 땅은 결실을 맺고 하늘은 추워지게 되어 이 결실을 거두어들인다. 봄, 여름 동안 하늘로 上升하였던 많은 水氣는 다시 아래로 下降하여 땅으로 모여 들게 되고, 五臟과 五主로 모여 들었던 水氣 역시 다시 經脈으로 流出(下降)되어 六腑를 통해 밖으로 排出하게 된다. 그러므로 辛味는 五臟으로부터 六腑로의 圓滑한 經脈流注를 助長한다. 가을이면 天涼하고 地水降하게 되므로 辛味는 天涼을 ‘逆之’ 하기 위한 반응이며 地水를 降하여 ‘順之’ 하기 위한 적응이다. 天涼을 ‘逆之’ 하기 위해 辛熱을 일으키며 地水降에 ‘順之’ 하기 위해 陰水를 五臟으로부터 빠르게 이탈시켜 經脈으로 흘러 보내어서 六腑 또는 밖으로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升은 入을 뜻하고 降은 出을 뜻¹⁹⁾하니 四時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辛以潤之散之’ 하는 것이다. 甘辛之味の 차이는 甘味の 경우 經脈이 火와 水를 모두 유지하여 和緩하게 하지만 辛味の 경우는 水와 火를 經脈이 빠르게 전달하려고 하지 그 자체에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 빨라지게 되어 이를 배출하게 한다. 水穀의 氣味는 소화 흡수되어 陰水의 경우 散精되어 腠理로 發汗되거나 肺로 다시 모아 내어 六腑 중에 방광을 통해 排尿하게 된다²⁰⁾. 辛味가 陰水의 經脈內 流注 속도를 아주 急速하게 하므로 天暑厚衣하면 發汗하게 하지만 天寒하면 下尿하게 한다. 汗과 尿는 모두 체외배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秋天에 地水를 降하게 하여 歸原시키는 것과 같이 辛味를 먹으면 체내로 흡입된 水氣를 汗尿로 배출시켜 원래의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과 같다. 天寒하

19) 인간은 생명체로 升하는 陽을 받아들이며 降하는 陰을 내보내게 된다.

20) 『素問·評熱病論』에서 “人所以汗出者, 皆生於穀, 穀生於精”이라 했는데 『類經』에서 “穀氣內盛則生精, 精氣外達則爲汗”이라고 설명했다.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라 했고, 『靈樞·五癯津液別』에서 “水穀皆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寒留於分肉之間, 聚沫則爲痛. 天寒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於膀胱, 則爲溺與氣.”라 했다.

면 天地否塞하게 되는데 이때 水氣는 經脈에서만 藏而沈하고 있다. 五主는 天寒하여 水氣를 받아들일 수 없고 六腑는 天地否塞로 인해 水氣를 받아들이지도 보내지도 않으니 모든 水氣는 經脈 내로 숨게 되어 藏而沈하게 된다. 辛甘之味는 六腑인 地位에서 五主인 天位로 氣를 發散하여 陽이 되고 酸苦之味는 五主인 天位에서 六腑인 地位로 氣를 收集하여 上湧下泄하게 되므로 陰이 되는 것이다²¹⁾.

3. 『靈樞·五味論』의 구조적 해석

酸味の 경우 五主가 溫暖해지면 陽火의 속성 때문에 溫氣가 外散하려고 하는데 이 外散하는 溫氣를 收斂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陰水를 收集²²⁾하게 된다. 그러므로 酸味는 陰水를 바탕으로 陽火를 저장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味이다.

苦味の 경우 陽火가 盛熱한 상태에서 陰水를 급격하게 끌어 모아 陽火의 盛熱을 식혀 溫和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盛熱을 식히기 위한 陰水의 증발과 소비가 계속되고 있을 때 형성되는 味이다. 그러므로 酸味는 溫陽之氣의 저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苦味는 盛熱之氣를 和溫하게 減弱시켜 조절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靈樞·五味論』에서 酸味가 太過하면 癰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질병의 발생 원리는 酸味에 의해 陰水가 陽火之溫을 體內的 아래에서 저장하려면 가장 최적의 장소가 宗筋이 되고, 宗筋을 酸味로써 지속

적으로 約束하게 되므로 癰이 되는 것이다.

인체는 水穀을 섭취하여서 크게 3가지 형태와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데 糟粕의 고체와 津液의 액체와 宗氣와 같은 기체의 3종류다. 그 중 津液과 宗氣는 營衛가 되어 流注散行하다가 汗出하거나 排尿하는 두 가지로 外出하게 된다. 인체는 과다한 體熱이 아니면 일정 정도의 發汗(不感發汗이건 아니건 상관없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액을 尿로 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汗出과 尿出 두 가지이다. 酸味는 汗尿의 배출 자체를 막아 收斂하는 성질을 가졌다. 하지만 甘味는 收斂작용까지는 아니지만 溫和하게 해서 粘度를 높여 補陰補陽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결국에 甘味는 水液을 보존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酸味는 水氣를 收斂해서 溫陽의 氣를 集積하려고 하지만 甘味는 자체의 溫陽의 氣로서 水氣가 달아나지 않게 粘着시켜두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酸味는 溫氣를 흡수하지만 甘味는 溫氣를 供給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酸味와 甘味는 水液을 보존하려는 성질이 있다.

苦味는 五主에서 盛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味²³⁾이다. 五主의 盛熱은 결국 五臟의 火勢 조절에 달려있지만 일단 五主가 盛熱하면 腑主之間²⁴⁾의 균형이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苦味가 작용하게 된다. 苦味가 형성되면 저절로 갈증을 느끼게 하여 물을 마시게 되며 체내에 있는 수액도 모두 끌어 올리고 모아서 五主의 盛熱을 溫和한 文火로 되게 바꾸어 준다. 예를 들어 少陽人 涼膈散火湯을 上消나 陽弱

21)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辛甘發散爲陽，酸苦涌泄爲陰，鹹味涌泄爲陰，淡味滲泄爲陽。”이라 했다.

22) 『靈樞·五味論』에서 “酸入於胃，其氣澀以收，上之兩焦，弗能出入也，不出即留於胃中，胃中和溫，則下注膀胱，膀胱之胞薄以懦，得酸則縮維，約而不通，水道不行，故癰。陰者，積筋之所終也，故酸入而走筋矣。”라 했으니 酸味는 氣를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23) 味는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며 생명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바로 五味라고 하는 것은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때마다 형성되는 水火의 寒熱燥濕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24) 六腑와 五主의 사이라는 뜻을 간략히 표현함. 이는 天地之間이라는 뜻을 함축하여 담고 있다.

으로 인한 自汗證에 처방²⁵⁾하는 것은 生地黃으로 水液을 공급함과 동시에 石膏의 甘寒한 맛으로 한바탕 장마비를 내리게 하듯이 補陰을 하며 忍冬 連翹 山梔子 知母 등의 苦味로 이 水液을 끌어 모아 五臟으로 공급하고 盛熱을 식힌 후 荊芥 防風 薄荷의 辛味를 타고 上焦火의 餘熱을 調節하여 經脈의 기운을 다시 六腑로 돌아오게 갈무리하는 형국이다. 苦味는 이와 같이 水液을 끌어 모아서 다시 湧出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酸味와는 다르다. 즉 苦味는 酸味와 같이 貯藏의 성질이 없고 ‘閉集而復出’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靈樞·五味論』에서 苦味를 이길 맛이 없으니 三焦가 모두 막혀 嘔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⁶⁾. 이는 苦味가 氣를 發出하지 않고 閉集하여 復出하는데 閉集이 貯藏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湧出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苦味가 體內的 六腑에서 발생하면 苦味는 가장 깊이 숨어있는 經脈을 움직이게 하므로 主蟄封藏之本人 腎에 작용하여 三焦로부터 가장 차고 맑은 水液을 끌어 올려 위로 湧出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苦走骨’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腎은 主骨하므로 苦味는 腎이 主管하는 骨과 같이 가장 깊이 숨어 있는 水液을 湧出하도록 작용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苦味는 六腑를 통해 받아들인 飲水를 三焦로 급격하게 끌어 모아 經脈을 통해 上升 流注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水氣로 五主에 盛熱을 조절하고 終局에 腎을 거쳐 排尿하게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苦味가 부족하면 經脈에서 유주되는 陰水의 量이 부족하여 저서 五主의 盛熱을 감당하지 못하고 증발하여

汗出하게 된다. 이것이 ‘少陽人自汗者, 自是陽弱’인 것이다. 苦味가 心의 味인 것은 五主에서 盛熱이 발생할 때 형성되는 맛이기 때문이고, ‘苦走骨’하는 것은 이 盛熱을 조절하기 위해 水氣를 얻어오는 곳이 腎이 주관하는 骨과 같이 아주 깊이 숨어있는 沈藏된 水氣를 이용하게 되므로 苦味의 작용하는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甘味는 자체가 溫性을 지니고 있고 적당한 온도를 가졌다. 즉 水氣와 火氣를 모두 적절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이 甘味를 좋아하며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다. 甘味는 能溫能濕하여 그 기운이 평화롭다. 甘味는 辛味와 같이 強烈하게 發散하는 힘은 없고 그 發散하는 힘이 弱小하다. 그러므로 上焦까지는 上達하지 못하고 中焦에 머무르며 그 자체가 濕潤하여 모든 생명이 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蟲動하는 것이다. 『靈樞·五味論』²⁷⁾의 甘味에 대한 해석을 보면, 예전에는 주로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게 되면 헛배앓이를 하는 것을 표현했다. 결국 甘味는 水火를 모두 갖춘 味가 되므로 몸에서는 저장하려고 할 것이므로 肉에다 쌓아두어 ‘甘走肉’이 된다. 甘味의 대표적인 처방이 八物君子湯이다. 少陰人의 脾約, 胃家實²⁸⁾에 쓰게 되는데 脾約의 경우는 勞倦으로 인해 表熱 自汗하고 利小便하여 津液과 元氣가 耗損되고 있는 것이고, 胃家實의 경우 思慮傷心하고 氣鬱하여 津液이 竭한데다가 元氣가 廢損된 것을 말하니 이미 水液과 溫陽이 損傷된 것이다. 津液이 外竭함은 自汗이요 內竭하면 小便 清利하게 되는 것이

25) 『東醫壽世保元·少陽人胃受熱裏熱病論』에서 “上消宜用涼膈散火湯… 少陽人汗者, 自是陽弱也, 而服涼膈散病已則此病即上消而其病輕也.” 라고 했다.

26) 『靈樞·五味論』에서 “苦入於胃, 五穀之氣, 皆不能勝苦, 苦入下脘, 三焦之道, 皆閉而不通, 故變嘔. 齒者, 骨之所終也, 故苦入而走骨, 故入而復出知其走骨也.” 라고 했다.

27) 『靈樞·五味論』에서 “甘入於胃, 其氣弱小, 不能上至於上焦, 而與穀留於胃中者, 令人柔潤者也, 胃柔則緩, 緩則蟲動, 蟲動則令人悅心. 其氣外通於肉, 故甘走肉.” 이라 했다.

28) 『東醫壽世保元』에서 “脾約云者, 津液漸竭, 脾之潤氣, 漸約之謂也. 胃家實云者, 津液已竭, 胃之全局, 燥實之謂也.” 라고 했다.

고, 氣鬱하여 津液이 閉澁不通하여 悠久하면 津自竭하고 氣自閉하여 陰陽의 氣를 모두 傷한 것이다. 이때 甘味가 主가 되는 八物君子湯을 사용하는 것이다. 甘味는 燥한 津液을 보충하여 濕潤하게 하고 지쳐버린 元氣에 완만하게 補充하여 陰水, 陽火를 모두 돕게 되는 것이다.

辛味는 甘味와 같은 緩補의 역할이 아니라 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쓰고 난 물질을 회수할 수 있게 疏通하는 것이다. 辛味는 發散하여 氣를 外達上升하게 하며 중심을 비우게 만드니 洞心하고 辛走氣하게 되는 것이다²⁹⁾. 辛味는 六腑에서 陽火를 만들어 五臟을 통해 五主로 보낼 때 형성되니 가을이 되어 五主가 涼하면 하늘이 地熱을 식히면서 그 火熱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상통한다. 辛味는 甘味가 濕溫을 保存해서 水火를 보충해주는 것과는 달리 辛味는 火熱을 만들어 五主로 走達시켜 주는 역할만 한다. 이때 火熱의 氣는, 땅이 봄 여름동안 水氣를 하늘에 내어주고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형성된 氣이다. 五臟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陽氣를 六腑에 쌓아두었다가 五主가 寒涼해지면 火陽을 빼내어 하늘에 해당하는 五主로 보내주게 되고 五主로부터 經脈을 통해 六腑로 水氣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는 마치 여름동안 땅이 火陽을 모아둔 것을 가을이 되어 하늘에 되돌려 주고 하늘로부터 水氣를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된다. 이와 같은 작용은 소화시킬 때 만들어진다. 辛味는 물질 속에 담겨있는 氣를 뽑아내고 陰水를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洞心하게 되고 走氣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辛味는 天暑厚衣하면 發汗하게 하지만 天寒하면 下尿하게 한다. 어떻게든 濕熱之氣를 發散

시키기 위해 陰水를 버리게 된다. 이것은 陰味에서 火熱을 發散시키기 위해 陰水를 방출시켜버리는 것이다. 苦味の 湧出은 陰水를 閉集시켜 經脈을 통해 上升시키는 현상이지만, 辛味の 방출은 五主로부터 陰水를 최대한 빠르게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현상이다.

酸味는 收澁하고 苦味는 閉集이 湧出하고 甘味는 補하고 辛味는 放水發陽하여 水火相濟의 작용이 있으나, 鹹味는 地水를 含藏하기만 하고 天火와의 交感은 없다. 鹹味는 血中으로 유입되어 血中으로 陽氣를 鹹藏하는 것이다³⁰⁾.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고 할 때 소금에 절이게 되는데 소금에 절인 음식은 그 상태의 변화가 적고 오랫동안 일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소금에 의해 먼저 음식물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여 부패할 때 필요한 수분을 제거시키게 되며 음식 자체는 염분에 의해 高張의 상태가 되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水氣를 빠져나오게 함과 동시에 火氣를 유지하게 한다. 血은 氣를 따라 흐르고 水는 火를 따라 흐르게 되므로 염분은 인체의 일정한 陽氣의 량과 비례하게 된다. 부패가 일어나면 火陽이 달아나고 形質은 녹아내려 사라지게 하는데 형태가 붕괴되는 것은 바로 火氣가 방출되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 形과 質은 水火에 의해 유지되는데 形은 水에 의해 유지되므로 月象을 따라 肥瘦하여 盈虧가 생기고 質은 火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日數³¹⁾에 따라 強弱이 생겨 虛實이 보이게 된다. 이렇듯이 形質은 반드시 水火가 相濟하여야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水氣가 방출되고 火氣가 散發하게 되면 부패하여 붕괴되는 것이다. 겨울에는

29) 『靈樞·五味論』에서 “辛入於胃，其氣走於上焦，上焦者，受氣而營諸陽者也，薑韭之氣薰之，營衛之氣，不時受之，久留心下，故洞心。辛與氣俱行，故辛入而與汗俱出。”이라 했다.

30) 『靈樞·五味論』에서 “黃帝曰：鹹走血，多食之，令人渴，何也。少俞曰：鹹入於胃，其氣上走中焦，注於脈，則血氣走之，血與鹹相得，則凝，凝則胃中汁注之，注之則胃中竭，竭則咽路焦，故舌本乾而善渴。血脈者，中焦之道也，故鹹入而走血矣。”라 했다.

天寒하여 火陽의 기운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陽氣가 아주 미약한 寒氷의 계절이다. 이러한 겨울이 되면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一陽을 保藏하기 위해 陽氣를 씨앗처럼 간직하고 더 이상의 陽氣의 방출이 없게 하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마지막으로 形脫하여 생명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鹹味를 갖추어 陽氣를 保藏하는 것이다. 鹹走血하게 되는 것은 血이 바로 火神을 저장하고 있는 水로서 血이 사멸하면 모든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五主 가운데서 水를 담고 있는 것이 脈이요 그 속에 흐르는 것이 血인 것이다. 그러므로 鹹走血은 血중의 火氣인 神氣를 지키는 것이다. 『靈樞五味』에서 ‘穀味鹹先走腎’이라고 한 것은 鹹味가 겨울의 동절에 작용하여 一陽의 씨앗을 保藏하는 것과 腎藏精의 기능이 일치하기 때문에 腎으로 간다고 했다.

4. 『素問·藏氣法時論』의 구조적 해석

四氣五味論을 五臟에 배속하여 虛實補瀉를 논술한 것이 『素問·藏氣法時論』에서 보이고 있으며 각각 臟器가 願하는 상태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³²⁾. 五臟은 精神血氣魂魄을 藏하는 바라 했는데 이 精神血氣가 바로 생명의 근원인 陽氣를 지닌 곳이다. 陽氣의 모습은 곧 하늘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陽氣를 바탕으로 神明의 작용이 이루어진다³³⁾. 五臟이 우리 몸에서

位置하는 방식은, 마치 하늘에서 태양이 순환하는 자리와 같은 形局이다. 心肺는 膈上하여 地上위로 떠올라 있는 태양과 같고, 肝腎은 地下에 숨어있는 태양과 같다. 肝은 日出的 黎明이요, 心은 日中天한 것이요, 肺는 日沒의 黃昏이요, 腎은 日藏의 夜中이다. 그러므로 氣在肝하면 春溫과 같고, 氣在心하면 夏熱과 같고, 氣在脾하면 長夏와 같고, 氣在肺하면 秋涼과 같고, 氣在腎하면 冬寒과 같게 되는 것이다. 五臟의 虛實은 바로 四時의 氣가 太過不及하여 발생하게 된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肝欲散, 心欲軟, 脾欲緩, 肺欲收, 腎欲堅’이라고 한 것은 모두 四時之氣의 升降浮沈에 順應하는 방식이다. 春溫에는 欲散하고 夏熱에는 欲軟浮하고 長夏에는 欲緩하고 秋涼에는 欲收하고 冬寒에는 欲藏堅함과 같다. 藏氣는 四時에 法하여 順應하고 適應하는 것이다.

肝은 溫和한 봄날과 같아 散하여야 하는데 이에 順應하면 補가 되고 逆하면 瀉가 된다. 酸味는 收瀉하므로 肝氣를 瀉하게 되며 辛味는 放水發陽하므로 補가 된다. 心火가 虛해지면 躁越해지기 쉬워진다. 心火가 약하기 때문에 水寒之氣를 두려워하고 火氣가 불안하여 躁越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鹹味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水氣를 배출하고 鹹味 자체가 유입되면서 陽氣를 보존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心虛하면 鹹味를 통해 補하게 되는 것이다. 辛味는 發揚하여 오히려 陽氣를 많이 보충할 수 있으나 급격하게 또한 소비하게 되어 心火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心火는 君火에 해당하여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급격한

31) 『靈樞經世書·觀物外篇』에서 “象起於形, 數起於質.”이라고 했는데 形은 量的인 개념으로 多少를 나타내어 象을 가지지만 質은 性質을 표현하여 盛衰로 나타나므로 數와 같이 理性的인 개념을 가진다.

32)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用鹹補之, 甘瀉之…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用苦瀉之, 甘補之…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라고 하여 肝은 散하고자 하고 心은 軟하고자 하며 脾는 緩하고자 하고 肺는 收하고자 하며 腎은 堅하고자 한다. 이는 모두 四時之氣의 升降浮沈에 順應하는 방식이다.

33)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者, 若天與日”이라 했고, 『靈樞經世書』에서 “天之神棲乎日, 人之神發乎目.”이라고 했다.

변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心虛하면 鹹味를 사용하는 것이다. 생명체는 極點이 있다. 이 極點을 넘어서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인체에서 盛熱하여 최극점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기가 心臟이다. 그래서 心을 君主의 官이라 했다. 四藏의 肝脾肺腎은 모두 시작과 과정이다. 腎은 始終을 잇는 곳ियो, 肝은 시작하는 곳이며, 脾는 極點을 넘어서 쉬는 곳이고, 肺는 갈무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극한 곳에서는 相克의 기운이 들면 共滅하게 된다. 命理學에서도 身強함이 너무 지나치면 其子로 洩之하지 相克의 기운으로 克之하지 않는다. 人身 中에 心君火는 克之할 수 없고 心君火가 相克을 받으면 사멸하게 되므로 火生土하는 甘味로 洩之하는데 이것이 心을 瀉하는 방법이다. 心火는 恒常 搏動하여 至極한 상태이므로 甘으로 緩之하게 하는 것은 마치 火가 極盛할 때 土로 그 기운을 빼내어 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心火는 鹹味로 補하고 甘味로 瀉하는 것이다.

脾는 長夏를 주하므로 長夏에는 天地가 勞極하여 지쳐있는 것과 같이 人身도 피로하다. 그러므로 甘味로 補하여 휴식하게 하는 것이다. 脾는 뜨거운 여름에 내리는 시원한 장마비가 補가 되는 것이다. 甘味는 만물을 쉬게 하고 補하게 하니 緩할 수 있다. 그런데 苦味는 갑자기 濕水를 閉集而 湧出하여 六腑에서 水氣를 거두어 經脈을 통해 五臟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苦味는 火熱을 잡아먹고, 水濕도 빨아올려 脾의 여유를 앗아버리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燥하고 寒하게 되므로 苦味는 脾를 瀉하게 한다. 肺는 가을의 기운에 해당하여 당연히 酸味로 補하고 辛味로 瀉하게 된다. 腎은 夜中이오, 天寒한 冬節에 해당한다. 만

물은 겨울에 얼어 가만히 숨어 지내게 되는데 腎欲堅은 이러한 뜻이다. 苦味는 水濕을 閉集하여 湧出시켜버려서 六腑를 燥하게 함과 동시에 經脈을 통해 五臟으로 水氣를 보내므로 특히 腎은 潤氣를 머금을 수 있고³⁴⁾ 火熱을 잡아먹어서 寒하게 하므로 腎의 氣를 補하는 것이 된다. 鹹味의 경우 水濕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火陽의 기운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형국이 되므로 腎에 있어서 瀉가 된다.

五味의 발생 자체도 자연의 調和와 均衡을 통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治病을 위해 五味를 사용할 때도 역시 우리 몸 안팎과 上下의 調和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I. 결 론

四氣五味論에 대한 해석은 우리 몸을 둘러싼 자연이 四時變化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天人相應’의 원리를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天地日月과 人身의 비교를 먼저 하고 이를 토대로 四時變化에 따른 자연변화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氣味變化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味라 하는 것은 바로 天의 四氣가 地의 水氣에 녹아내려 만들어진 것으로 생명의 원천이요 삶의 근원이 된다. 人身의 陰陽清濁과 天地水火를 類分하는 것을 기준으로 五味를 설명할 수 있으니 天은 五主에 해당하고, 地는 六腑에 해당하며,

34) 『素問·藏氣法時論』에서 各臟의 補瀉를 論하기 전에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通氣也.” 라고 했는데 腎은 陰藏이라서 燥를 피로하는데 여기서 辛을 사용한 것은 몸의 전체의 상태에서 五主에 陽氣가 부족하여 水濕이 五主에 停滯된 현상을 解消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苦味를 쓴 것은 冬寒의 本氣가 부족한 것을 補充하기 위한 것이다.

日火는 五臟에 해당하고, 月水는 經脈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2. 봄이 되면 天溫하여 地水는 升하며 땅에서는 酸味가 이루어지는데 酸味는 溫氣를 모으고 六腑에서 水氣를 거두어 經脈으로 上升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여름이면 天熱하여 地水는 浮하게 되므로 苦味가 이루어지고, 腑는 五主의 熱氣를 흡수함과 동시에 六腑 內에 머무르고 있는 水氣를 급격하게 흡수하여 經脈을 통해 水氣를 끌어 올리려고 하는 苦味의 상태와 같아지게 된다. 長夏에 勞極熱盛하면 甘味가 이루어지고, 甘味는 五臟에게는 溫和한 火氣를 공급하며 六腑에게 水氣를 역시 완만하게 공급하게 한다. 가을이 되어 天涼을 ‘逆之’ 하기 위해 辛熱을 일으키며 地水降에 ‘順之’ 하기위해 陰水를 五臟으로부터 빠르게 이탈시켜 經脈으로 흘러보내어서 六腑 또는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 겨울이면 天寒, 地水沈藏하여 天地否塞하니 鹹味가 이루어지니, 水氣는 經脈에서만 藏而沈하고 있다.

3. 酸味는 陰水를 바탕으로 陽火를 저장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味로 水氣를 收斂해서 溫陽의 氣를 集積하려고 하며 苦味는 陽火가 盛熱한 상태에서 陰水의 증발과 소비가 계속되고 있을 때 형성되는 味이며, 水液을 끌어 모아서 다시 湧出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甘味는 能溫能濕하여 水氣와 火氣를 적절하게 지너 緩補할 때 발생하는 氣이며, 辛味는 發散하여 氣를 外達上升하게 할 때 생기는 味이며, 氣를 뽑아내고 陰水를 버리게 된다, 鹹味는 地水를 含藏할 때 나타나는 味이다.

4. 辛甘之味는 六腑인 地位에서 五主인 天位로 氣를 發散하여 陽이되고 酸苦之味는 五主인 天位에서 六腑인 地位로 氣를 收集하므로 陰이 되는 것이다

5. 五臟의 虛實은 四時의 氣가 太過不及하여 발생하며, 臟氣를 四時에 法하여 順應하게 하면 補가 되는 味이며 逆之하게 하면 瀉가되게 하는 味이다.

검색어 : 사기오미, 오장, 육부, 오주, 경락

참 고 문 헌

1. 金吞虛 역저. 『주역선해』. 서울:교림. 1985: 315-319.
2. 金赫濟 교열. 『원본집주 주역』. 서울:명문당. 1987:83-85.
3. 李允熙 譯解. 『參同契闡幽』. 서울:여강출판사. 2000:117-127.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을유문화사. 1992: 296, 327-328.
5. 許浚.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91:349.
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14, 16, 31, 29, 86, 88~89, 92, 123, 237, 248, 304.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71, 79, 183, 213, 270.
8. 邵康節. 『皇極經世書』. 서울:대원출판. 2002: 225, 244, 247.
9. 李東垣 外5名. 『改訂版 東垣十種醫書』. 1983:80.
10. 張介賓. 『類經』. 서울:대성문화사. 1988:337.